

그림에 비춰본 28가지 인생 이야기

# 인생, 그림 앞에 서다

이명옥 지음



〈그림 읽는 CEO〉 저자

이명옥 관장이 들려주는 76편의 힐링 아트

“그대는 지금 누구의 인생을 그리고 있는가”

21세기북스

통한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과 같다.

이런 사람은 많은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는 있지만 그 나라의 사정에 대해 정리된 지식, 즉 명확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와는 반대로 사색으로 일생을 보낸 사람은 실제로 그 고장에 발을 들여 놓은 사람과 같다. 이런 사람만이 그 고장을 진정한 의미로 알 수 있으며, 그 곳 사정에 대해서도 정리된 지식을 가질 수 있고 또한 내 집처럼 정통할 수가 있다. …… 독서에는 어려운 조건이 있다. 종이 위에 쓰인 사상은 모래 위에 남겨진 보행자의 발자국과 같이 그 사람이 걸어간 길은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그 길을 걸으며 무엇을 보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눈을 사용해야 한다. …… 이세상에서 아름답고 풍부하게 열매를 맺는 어떤 행복도 사색의 시간에 자신 속에서 발견하는 정신적 행복을 따라가지는 못한다.”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색의 자양분이 되는 독서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책만 많이 읽은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독서에 그치지 않고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알기 위해서는 읽어야 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아는 것은 사색의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 16 에로틱한 독서

“성적 이미지는 일반 텔레비전이 가득한 매장에 놓인 단 한 대의 HD 텔레비전처럼, 남자를 유인하고 사로잡고 매혹시킨다.”

—윌리엄 M. 스트러더스



발루스, 《책 읽는 카티아》 1968~1976, 캔버스에 유채

독서와 섹스라는 두 단어를 하나로 묶는다면? 당혹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으리라. 독서는 지성, 영혼의 양식, 배움 등의 고상한 단어와 더 어울리니까. 그러나 독서는 신성한 독서와 에로틱한 독서라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20세기 프랑스 화가 발튀스의 그림은 책 읽기와 성욕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증거물이다.

소녀가 1인용 소파에 편안한 자세로 앉아 독서를 한다. 그런데 소녀의 표정을 보면 독서에 몰두하는 것 같지 않다. 특히 눈빛이 야릇하다. 불안과 교태, 호기심이 뒤섞였다. 야한 내용이 들어 있는 로맨스 소설을 읽고 있는 것일까?

소녀의 몸에는 아이와 성인의 성징이 동시에 나타나 있다. 가느다란 팔다리, 납작한 젖가슴은 미성숙한 소녀인데 눈빛은 이미 성숙한 여성의 것이다. 누군가 독서하는 소녀를 몰래 훑쳐본다. 엿보는 사람은 남자, 그것도 성인 남성이다.

남자의 끈끈한 눈길은 가슴골이 훤히 보이는 소녀의 젖가슴을 더듬고, 허벅지가 드러난 치마 속을 엿따른다. 사춘기 미소녀는 남자의 관음증을 자극하는 대상이다. 관음증이란 다른 사람을 훑쳐봄으로써 성적 쾌락을 느끼는 성도착증을 말한다.

중년 남성의 관음증을 자극하는 발튀스의 그림은 블라디미르 나보코

프의 장편소설 『롤리타』와 유사한 외설 시비를 일으켰다. 심지어 포르노그래피, 어린아이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소아성애자<sup>paedophile</sup>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작품을 보는 시각도, 평가도 달라졌다. 지금은 인간의 원초적 욕망을 표현한 걸작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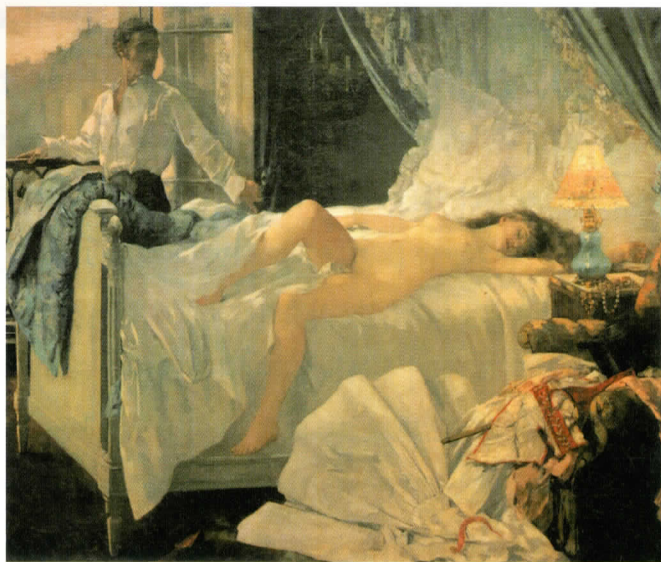
하필 사춘기 소녀를 선택했을까? 사춘기는 소녀에서 성숙한 여성으로 변신하는 시기, 성적 호기심과 두려움이 혼재하는 시기다. 술에 비유한다면 청순함과 섹시함의 각테일이다.

화가의 절반은 어린이, 절반은 여성인 이중성에 매혹당하는 중년남성의 성심리를 독서하는 소녀의 모습에 투영한 것이다. 이 그림은 남자와 여자의 성적 코드가 다르며 남자는 ‘보는 것’, 여자는 ‘읽는 것’과 ‘이야기’에 열광한다는 증거물로도 보인다.

최근 《뉴욕타임스》<sup>NYT</sup>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영국의 무명작가 E. L. 제임스가 쓴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sup>Fifty Shades of Grey</sup>라는 에로틱 소설이 ‘엄마들의 포르노’라는 입소문에 힘입어 초대형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소설은 처음에는 서점에서 잘 팔리지 않았지만 전자책으로 만들어져 보급되면서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이유는? 소설의 주 독자층인 미국의 성인 여성들은 서점에서 야한 소설을 사기를 꺼려한다. 반면 전자책은 은밀하게 구매해 읽을 수 있다. 이것이 대박의 비결이었다. 여성 독자들의 심





앙리 제르벡스, 《롤라》 1878년

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예전에 『팜파탈』을 좋아하는 한 여성 독자와 만났을 때 이렇게 하소 연했다. “관장님, 저는 주로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책을 읽곤 하는데 관 장님이 쓰신 『팜파탈』에는 야한 도판이 많아 은근히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요. 독서에 집중하기 힘들어 제 방에서만 읽고 있어요.”

나 역시도 그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센세이션전』을 집필 하는 동안 에로티시즘에 관련된 다양한 참고 서적들을 읽었다. 「예술이 나 외설이나」장에서 동시대의 도덕적 금기에 도전하거나 사회적으로 물

의를 일으킨 에로틱한 작품들을 소개하고,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해야 했다.

어느 날 복잡한 전철 안에 선 채 열심히 책야한 도판이 수록된을 읽고 있는 데 뒤통수가 다가왔다. 고개를 돌리는데 두 남자가 목을 쭉 빼고 끈적이는 눈길로 도판을 훑고보는 것이 아니라 있었다. 순간 얼마나 놀라고 민망했 던지. 그 후로는 공공장소에서 야한 그림이 수록된 책은 가급적 읽지 않 으려고 한다.

최초의 충격이 가시면서 의문이 생겼다. 대체 남자들은 왜 야한 그림 을 저토록 좋아하는 것일까? 인지신경과학자인 오기 오가스와 사이 가 담의 『포르노 보는 남자, 로맨스 읽는 여자』를 읽고 그 궁금증을 풀게 되 었다.

두 학자는 전 세계 50만 명의 남녀가 검색한 10억 건의 웹 검색 내용, 수십만 권의 에로 소설, 500만 건의 성인용 구인 광고, 수천 편의 디지털 로맨스 소설, 4만 개 이상의 성인 웹사이트를 과학적이고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남자와 여자의 성 심리와 두뇌 소프트웨어에는 커다란 간극 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남자와 여자는 성감대도 달랐다. 남자는 시각, 여자는 감성이었다. 그 증거로 성인 웹사이트 순위 목록을 보면, 남자는 1위부터 5위가 포르노 동영상 사이트인 반면, 여자는 팬 픽션fan-fiction과 로맨스 소설 관련 사이트였다. 미국 로맨스작가협회에 따르면,

2008년 로맨스 소설은 총 13억 7,000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소설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남자는 왜 포르노에 빠져들까? '시각' 신호가 남자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여자는 왜 로맨스 소설에 열광할까? '심리적 신호'가 여자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남자는 초고속으로 흥분하며, 목표가 있고, 욕구를 즉각 해소. 지금 당장 섹스를 해야 할 것 같은 해야 하는 반면 여자는 관계의 진정성과 감정의 교류로 로맨스 소설 속 남자 주인공과 사랑을 나눈다에서 성욕을 느낀다. 이처럼 남녀의 성적 신호는 다르다. 말 그대로 밝히는 남자와 바라는 여자인 것이다.

안창홍의 그림은 남자의 뇌가 여자의 뇌보다 시각적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매력적인 젊은 여자가 요염한 자세로 소파에 엎드려 있다. 여자는 남자의 성감대를 자극하기 위한 유혹의 미끼를 던진다. 갈구하는 눈빛, 새빨간 입술과 슬리퍼, 하의실종 패션으로, 비쩍 마른 개 한 마리가 여자의 은밀한 부위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고 있다. 개는 욕정에 굶주린 남자를 은유한다.

레몽 잠의 소설 『책 읽어주는 여자』는 독서보다 성적 파트너에게 더 관심을 두는 남자의 심리를 절묘하게 포착하고 있다. 여주인공 마리-콩스탕스는 “집을 방문해 책을 읽어드립니다”라는 기상천외한 광고를 내고



안창홍, 《무례한 복들이》 2010년, 캔버스에 유채

‘책 읽어 주는 여자’라는 이색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

마리의 고객들은 책을 읽고 싶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 병자, 장애인, 노인, 정년퇴직자, 독신자 등이다. 미셸 도트랑도 마리의 고객 중 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업가인 그는 너무 바빠서 책 읽을 시간조차 없지만, 비즈니스를 위해 교양인 행세를 해야 한다. 그는 마리에게 문학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나 독서 습관을 기르지 못한 그는 마리가 책을 한 페이지만 읽어도 잠들고 만다. 다음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갔던 대화다.



“책을 접어요. 거기 옆에다 내려놓아요. …… 그건 말할 필요도 없이 훌륭해요. …… 그러나 어찌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책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모르고 있어요.”

여자들은 남자가 지나치게 동물적이라고 헐뜯는 반면, 남자들은 여자가 지나치게 감정적이라고 비난한다. 오기 오가스와 사이 가담은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감정 처리를 위한 뇌 회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자와 여자가 상대방의 성적 신호를 파악하고 이해한다면, 서로에게 훨씬 더 큰 편안함과 자신감, 연민을 느낄 수 있다. 진정으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제 내 남자가 모래시계 몸매를 과시하는 야한 여자에게 눈길을 떼지 못해도 색정광이라고 비난하지 말자. 내 여자에게 강하면서도 감수성이 풍부한, 터프하면서도 섬세한 훈남이 등장하는 로맨스 소설을 사서 선물해도 좋으리.

## 17 섹스보다 강렬한 유혹, 성적 환상

“그녀들을 공평하게 대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면 오직 한 여자하고만 혼인하라.” -『코란』 4:3

지금은 사라진 명칭 중에 터키탕이 있다. 과거 터키탕은 퇴폐 업소를 의미했다. 사우나 시설이 있는 밀실에서 안마와 마사지, 목욕 등을 풀코스로 서비스 받고 성매매도 하던 곳이었다. 하필 한국식 퇴폐 목욕탕을 터키탕이라고 불렀을까?

터키에서 유래하지 않았고, 실제로 터키에는 없는데도 말이다. -미국의 텍사스와 전혀 상관없는 한국의 사창가를 텍사스촌으로 부르는 것도 이상하다.- 1990년대 말 주한 터키대사관이 터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력 항의하고 명칭 변경을 요구해 그 이후에는 ‘증기탕’으로 바뀌어 불리우고 있다.

터키에는 ‘하맘<sup>HAMAM</sup>’이라는 진짜 터키탕이 있다. ‘하맘’에서는 알몸으로 목욕하지 않고, 남녀가 혼욕을 하지도 않는다. 한마디로 퇴폐와는 거리가 먼 건전한 목욕탕이다. 흥미롭게도 18~19세기 유럽인들도 한국인처럼